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선한 목자와 양

(요 10:1-6)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복음은 전체가 주옥같이 보배로운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본문은 성도들이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과 성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당시의 역사적인 혹은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산비탈에 돌이나 바위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과 또 하나는 도시 안에 양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비탈에 있는 우리는 돌이나 바위로 담을 쌓아 만들어 낮에 양들을 자유롭게 방목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내려오기 힘들어 이곳에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우리는 특별한 문이 없고 문지기나 목자가 양을 지킵니다. 이때 문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 양을 도적맞거나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주셨지만 두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비유의 뜻이 바르게 설명될 것입니다.

1. 비유의 두 가지 해석

(1) 양의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요 10:7 하)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양들을 안에 집어넣고 스스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떼를 육탄으로 막아주시며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양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2) 양의 우리는 교회

3절의 양의 우리는 도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문지기가 각각 부른다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문지기를 성령님으로 해석합니다. 성령께서 각각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양들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양의 우리를 유대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맹인이었던 자를 어둠, 곧 유대교의 안타까움에서 고집어 내셨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2. 목자와 양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요 10:1하)

'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통해서 드나들지 아니하는 것은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양'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7절과 9절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11절에서는 '목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며 뿐만 아니라 친히 목자도 되신다는 말입니다.

(1) 합법적 관계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친자(親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 아니며 도적이요 절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 불법적 관계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없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며 그들은 하나님과 불법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촌의 박태선은 자기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로, 백성을 구원한다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얼마 안 가서 무너졌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도 예수는 실패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문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구주라고 외치는 그들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담 넘어 들어온 절도요 강도입니다. 강도는 양의 우리에게 들어와서 양을 훔치고 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단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리적으로 조그만 의견 차이를 가지고 함부로 이단을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교회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양의 우리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우리에게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다음 주 계속)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 20(월) - 6. 25(토) 새벽 5시 - 6시 / 강사 : 손달익 목사

내일 6월 20일(월)부터 25일(토)은 홍해작전 마지막 주간으로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시간은 새벽 5시 - 6시까지이며 손달익 목사가 강사로 선다.

교회는 이 기간 중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8층 만나홀에서 간단한 아침식사를 준비 중이다.

2022 홍해작전 기간(6. 6 - 6. 25) 중에 전

도자가 초신자를 새벽기도회나 주일예배에 초청하여 참석한 경우, '2022 홍해작전 전도 초청자 카드'를 작성하여 본당 2층 안내데스크 '전도 초청자 카드 합'에 넣어 주시기 바란다.

2022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작년 11월 28일(주일), 교회는 추수 감사헌금을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총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 결실이 지난 6월 16일(목)에 맺어졌다. 총회는 우리 교회의 후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작은 교회 세우기 온라인 시스템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18개 교회에서 추천 및 선정한 18개 교회에 250만 원씩 지원하는 시상식을 6월 16일(목) 대전제일교회에서 가졌다.

이 날 손달익 담임목사는 설교와 시상식에 참여하여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선정된 18개 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충북노회 : 봉산교회(김남혁 목사)
2. 충주노회 : 상곡복된교회(서정주 목사)
3. 충남노회 : 내포나눔의교회(박진홍 목사)
4. 전북노회 : 고천교회(오재호 목사)
5. 전북동노회 : 밀알교회(장은실 전도사)
6. 남원노회 : 겨자씨교회(나광호 목사)
7. 김제노회 : 행복나교회(강정원 목사)
8. 전서노회 : 주사랑교회(유재영 전도사)
9. 순서노회 : 망주교회(주경봉 목사)
10. 목포노회 : 함께가는교회(김재현 목사)
11. 땅끝노회 : 당인교회(김태균 목사)
12. 진주노회 : 목도교회(위창욱 목사)
13. 진주남노회 : 냉천교회(오현준 목사)
14. 경서노회 : 선한목자교회(서대영 목사)
15. 경안노회 : 송강교회(김종해 목사)
16. 영주노회 : 풍신교회(유진숙 목사)
17. 강원노회 : 횡성영락교회(천병곤 목사)
18. 강원동노회 : 신기중앙교회(김광현 목사)



① 작년 11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류영모 총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다.
② ③ ④ '작은 교회 세우기 온라인 시스템 지원 공모사업' 시상식 및 세미나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 홍해작전 4행시 공모

- 주제 : 홍해작전, 새벽기도, 소망예수
- 대상 : 전교인
(교육위 소속 주일학교 별도 시행)
- 응모 기간 : 특별새벽기도기간(6/20-25) 예배 전후 30분
- 1인당 개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응모 가능
- 제출 방법 : 본당 2층 로비 응모함에 제출
- 교구, 성명, 연락처(전화) 표시 요망
- 시상 발표 : 7월 3일(주일) 순례자 재재 및 수상자에게 개별 전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교회 직원 채용 공고

- 경리(회계) 담당, 식당 담당 -

올해 말 정년이 되는 교회 경리(회계) 담당자의 후임 직원과 교회 식당에서 상시 근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 자격과 조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익 목사는 지난 주(12일) 2부 예배 후 에바다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은혜롭게 진행되는 다락방 리더 훈련

노약자 심방을 받고

그립고 그리운 서울교회



이찬호 은퇴집사 (4교구)

그리운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호 집사입니다.

항상 그리워하면서 기도했었던 서울교회에서 이 멀리 충주 산골까지 심방 와주신 손달의 담임목사님을 뵈게 되어 정말 감개무량 하였습니다.

저희 집 정원에서 손달의 목사님과 박영숙 사모님, 장석남 목사님, 전재홍 목사님 그리고 최 권사와 함께 심방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손달의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4-7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최 권사를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큰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심방해 주신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중하여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운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흥해작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임우택 집사
(2022 흥해작전
동원분과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6월 흥해작전이 시작되면 제가 어릴 때 고향 교회에서 엄마 손잡고 종종 걸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따라 다니던 일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2005년 3월 1일에 저희 가족을 포크레인으로 떠서 옮기듯이 대치동으로 옮겨 주시고 동네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내 사랑 서울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흥해작전'은 생소한 단어였지만 새벽 기도회에 믿음으로 참석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현, 채연, 수현 3자녀를 깨워 참석시켰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출석 확인 도장 받는 것이 기쁨이었던 꼬맹이들이 세월을 훌쩍 넘어 지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채연이는 "흥해작전에 참석해야 한다"며 금요일 밤 늦게 직장 기숙사에서 돌아와 토요일 새벽에 스스로 일어나 앞장서서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감사드릴뿐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년퇴직을 하면서 걸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나? 회고하고 반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 마친 후 성년 후로 미루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일이 바쁘다고 주일 성수 찬양대 봉사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구할 수 없는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저의 삶을 온전히 주께 바쳐 죽도록 충성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헌신봉사 해야 겠다 결심하고 주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날이면 성전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넘쳐나던 성도들의 발길과 본당 4층 예배 자리까지 기도와 찬양의 열기로 뜨거웠던 서울교회, 찬양대 설 자리가 비좁아 어깨를 겹쳐 서서 찬양해야 했던 서울교회, 흥해작전과 사명자 대회 새벽기도회에 구름떼처럼 몰려오던 '내 사랑 서울교회'..... 뒤돌아보면 가슴이 먹먹하게 미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예서 말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입니다.

'흥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2022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고 서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동참합니다.

그리하여 손달의 담임목사님의 송이 꼴보 다 단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도 간에는 사랑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친척과 이웃과 일터와 세상을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작은 불씨가 되어 움직여 큰불을 일으킵시다.

외로이 앉아 있는 다락방 식구에게 내가 먼저 따뜻한 위로의 전화 한 통화로 사랑을 전파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노방전도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는 명령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 대치동에서 강남으로 서울과 세계속으로 퍼져 나갈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내 사랑 서울교회 새로운 30년 부흥의 역사를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 봉사자를 찾습니다



차도훈 장로
(예배위원장)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감염자 숫자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격리를 해제하는 조치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신자도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봉사 인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일 1.2.3부 예배, 찬양 예배 안내 위원과 주일 1.2.3부 봉헌 위원으로 봉사하실 성도를

모집합니다.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채교천 집사
(010- 6444-2502)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로...

신지선 성도 (9교구)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는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종교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건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오빠(김원준)와 결혼준비를 하면서 저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교육과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몰랐던 지식을 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심적인 편안함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어설프게 알았던 부분을 새가족교육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김원준)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내적으로 확고해졌던 시간이었다고 좋아하니 저도 뜻깊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독교에 대해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며 교육해 주시고 신경써 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8주 동안 배웠던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받은 시간들

하원복 성도 (1교구)

4주간의 일정을 잘 소화하고 교육을 마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교육받으며 느낀 것은 인간 구원의 형식적인 단계를 가르치는 단순한 구원의 개념을 넘어 갈급한 영혼의 정곡을 하나하나 찌르며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과 인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스며들게 하는 교육 과정이 심도 있는 내용이라 다른 교회와 달랐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새신자 교육은 다시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받게 되어 기쁩니다. 신실하신

믿음으로 힘차고 긍정적이며 은혜 깊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손달의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은혜 충만한 남태영 권사님의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동정

- 식사 제공 : 6교구 김성준 집사 · 김선영 권사 가정 김동환 집사 · 정지은 성도 가정 (손자 김도아 유아세례 감사드리며) (3교구 정만진 집사 · 김희순 권사 외손자)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20일	월	시 32-35		고전 12-16	
6월21일	화	시 36-39		고후 1-13	
6월22일	수	시 40-44		갈 1-6	
6월23일	목	시 45-50		엡 1-6	
6월24일	금	시 51-56		빌 1-4, 골 1-4	
6월25일	토	시 57-62		살전 1-5, 살후 1-3	
6월26일	주일	시 63-68		딤후 1-6, 딤후 1-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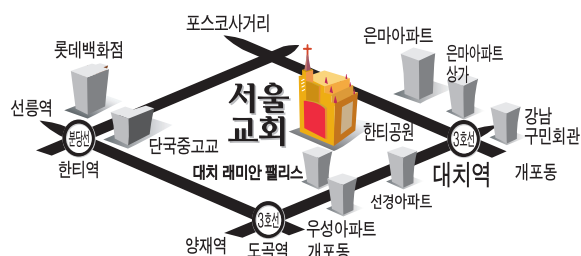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22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상황을 지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2. 홍해작전이 서울교회의 아픈 시대를 치유하고 넘어가는 도약대가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이루어져 세계 선교에 더욱 쓰임 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